

근대계몽기 학술지에 나타난 기독교 문화수용*

오지석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교수)

이지성 (투터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구한말 및 근대계몽기 학술지의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
- III. 근대 계몽기 학술지 속의 기독교 문화 수용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8.10>

* 이 논문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제17회 국내학술대회(2023.12. 22.)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며,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2723).

• ABSTRACT •

A Study of the Acceptance of Christian Culture
in Modern Enlightenment Journals

HK Prof., O, Jie-seok (Soongsil University)
Associate Prof., Lee, Jie-sung (Luther University)

The topic of “Modern Transition and Christianity” is still a hot potato in Korean society. This is because it was a central theme i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Government Designed Textbooks” a few years ago, which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ow we define and understand our modern transition. This study represents the first step in attempting to unravel the theme of “Christianity” within the context of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ical.”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 some individuals and articles related to Christianity from publications such as “THE CHOSUN(大朝鮮獨立協會會報 The Journal of the Great Korean Independence Association,)” “Taegeukhakbo(太極學報) The Journal of the Taeguk Society,” “Seou(西友),” “Choyangbo(朝陽報),” and “Sonyon Hanbando (少年韓半島).” Additionally, it encompasses the personal networks among individuals who converted to Christianity while imprisoned in Hanseong Prison from 1899 to 1904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m and Japa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who indirectly influenced the publication of enlightenment periodicals.

Key words: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Academic Journals, Christianity, Christian Culture, Japa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I. 들어가는 말

‘근대 전환기와 기독교’라는 화두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와 같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몇 년 전 “국정교과서” 논란의 한 축이 되는 화두였고 우리의 근대 전환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그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근대계몽기 학술지’ 속에서 등장하는 ‘기독교·문화·과학’이라는 화두를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근대 전환기의 잡지인 『대조선독립협회보(大朝鮮獨立協會報)』¹⁾, 『태극학보(太極學報)』²⁾, 『서우(西友)』³⁾, 『조양보(朝陽報)』⁴⁾,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⁵⁾ 등이고 구체적으로 기

-
- 1) 『대조선독립협회보』는 1896년 11월 30일 제1호를 발행한 독립협회 기관지로 1897년 8월 15일 제18호로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제1권, 서울: 현암사, 2004, 28)
 - 2) 『태극학보(太極學報)』는 일본 유학생 단체 ‘태극학회’의 기관지로, 일본 유학생들의 두 번째 잡지이다. 장웅진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1906년 8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1908년 12월 통권 27호를 내고 중간했다. 태극학회는 주로 관서지방(황해도, 평안도)에서 온 유학생들의 단체이다. 정확한 ‘연혁’ 정리되어 있지 않다. 구한말 근대 계몽기에 발행된 학술지 가운데 27호까지 속간된 최장수 잡지이다. 김기태, 『한국근대 잡지창간호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2022), 63;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권1, (서울: 현암사, 2004), 174.
 - 3) 『서우(西友)』는 1906년 10월 서울에서 평안도 및 황해도 출신 지식인들이 모여 조직한 구국 계몽단체 서우학회 기관지로 1906년 12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한 후 1908년 5월 통권 17호까지 발행된 잡지이다. 서우학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회였다. 서우학회의 창립 발기인은 박은식을 비롯하여 김달하, 김명준 등 12인이었다. 서우학회는 1908년 1월 한북홍학회와 통합하여 ‘서북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1908년 6월부터 『서북학회월보』를 발행하였다. 김기태, 위의 책, 73; 최덕교, 위의 책, 96.
 - 4) 『조양보(朝陽報)』는 1906년 6월 25일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지 성격을 띤 잡지이다. 장지연이 국민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국내외 정세를 보도하기 위해 창간하였다. 조양보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회원들을 두루 갖춘 단체를 기반으로 한 여타의 학술지에 비해 『조양보』는 그 기반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신문에 실렸던 글이나 외국의 글을 번역 소개한 것이 적지 않아 집필자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같은 책, 56-57; 최기태, 같은 책, 149.

독교 관련 인물들의 투고 내용과 기독교 관련 기사이다. 또 다른 연구 대상은 1899-1904년 한성감옥서(漢城監獄署) 수감자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들과 일본 유학생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계몽기 학술지 속의 기독교 문화 수용과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 형성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계몽기 학술지 속의 기독교 문화 수용과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 형성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근대계몽기 학술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삼은 해외 유학생들의 문화 활동을 다룬 김영민⁶⁾의 연구와 서북인 중심의 근대계몽기 지식인의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들로 전은경⁷⁾, 전성규·허예슬·이여진·최장락⁸⁾의 연구가 있으며, 재일본 조선인 유학생 단체와 재일조선기독교청년회의 관계를 다룬 전성규⁹⁾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
- 5)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는 1906년 11월부터 1907년 4월까지 총 6개호가 간행되었다. 손성준의 “해제 - 대한제국기 잡지의 정치성과 애국운동의 접변: 『소년한반도』를 중심으로”에서 잡지와 관련된 주석은 직접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이 잡지는 량치차오가 『청의보』에 발표한 「소년중국설」에서 영감을 받아 ‘소년한반도’라는 작명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년 한반도’의 ‘소년’은 국가의 현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년한반도』 창간 「축사」에 “오늘에 소년한반도 잡지를 축하하고 미래에 장년한반도 잡지를 다시 축하”한다는 대목은 앞서 말한 량치차오의 「소년중국설」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완전히 성립하는 것은 장년의 일이다. 완전한 성립에 이르지 못하고 점차 완전으로 가는 것은 소년의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로 말한다. 유럽 열방의 오늘은 장년국, 우리 중국의 오늘은 소년국이다.” ‘소년중국설’이 소년을 향한 발화가 아니듯, ‘소년한반도’ 역시 부단히 성장해야 할 대한제국과 그 국민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손성준, 해제: 대한제국기잡지의 정치성과 애국운동의 접변- 『소년한반도』를 중심으로”, 권정원, 신재식, 신지연, 전민경, 최진호 역, 『완역 소년한반도』, (과주: 보고사, 2021), 23-24.
- 6) 김영민, 「근대적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2, 2007, 297-338.
- 7) 전은경, 「근대계몽기 서북지역 잡지의 편집 기획과 유학생 잡지의 상관관계-문학 개념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3, 2018, 231-270.
- 8) 전성규·허예슬·이여진·최장락, “근대 계몽기 지식인 단체 네트워크 분석”,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 185-240.

1899년~ 1904년 한성감옥서 수감자들의 기독교 입교 관련 연구로 김일환¹⁰⁾, 최연정¹¹⁾, 홍승표¹²⁾ 등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구한말 및 근대계몽기 학술지 기독교인들 필자들과 게재 글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와 당대의 ‘기독교 문화’ 수용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서양 문화와 사상의 수용, 변용이라는 근대 전환기 문화의 메타모포스의 특징¹³⁾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구한말 및 근대계몽기 학술지의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시기는 개화기 이후 1910년 한일병탄 전까지다. 우리는 이 시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테면 이 시기를 개화기, 구한말, 근대계몽기, 근대전환기, 대한제국과 통감부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 조선의 지배층이 해금에서 개항으로 대외 정책을 변경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을 거치지 않은 서양의 문화와 문명이 한반도에 직접 유입되었고, 지식인들이 직접 해외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는 신·구 관료층, 유림층, 일반

9) 전성규, 「근대 지식인 단체 네트워크(2) - 『동인학보』, 『태극학보』, 『공수학보』, 『낙동친목회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학계보』, 『학지평』 등 재일조선인유학생 단체 회보(1906-1919)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3-2, 2022, 109-141.

10) 김일환, 『1899-1904년 한성감옥서 수감자들의 기독교 입교에 관한 연구』 (서울: 북랩, 2023).

11) 최연정, 「종교체험의 사회화: 구한말 한성감옥의 옥중 개종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44-4, 2023, 155-176.

12) 홍승표, 「기독교와 출판, 그 만남과 동행의 여정」 서린동 한성 감옥에서의 옥중도서실과 집단개종, 『새가정』 69, 새가정사, 2017, 53-57.

13) 윤영실, “근대전환기 문화(교유문화/외래문화)의 메타모포시스와 식민지 근대·임화의 『개설신문학사』를 중심으로”, 윤영실 외 지음, 『근대전환기 문화들의 조우와 메타모포시스』-메타모포시스 인문학총서 9. 보고서, 2021. 에 메타모포시스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다.

민중층,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지식인과 일본 유학생들이 학회 및 협회를 구성¹⁴⁾하며, 실용 위주의 잡지보다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자주 독립을 외치며 잡지를 창간하고 발행하였다.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은 1884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조선의 지배계층과 교류했으며, 1892년 『코리아리포지토리*The Korean Repository*』를 발행하면서 타자의 시선으로 본 ‘조선’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드러냈고, 이는 한국학의 출발이라 할 정도로 서양의 지적 네트워크에 ‘한국’을 소개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1887년 2월에는 『대한크리스도인회보』를 1898년 1월에는 『협성회보』를 배재학당을 중심으로 발행하여 기독교 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 기독교 네트워크이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잡지 발행과 집필에 관련한 서재필이 주도한 대한독립협회, 한성감옥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사들과 동경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와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YMCA)를 기독교 지식인 네트워크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이제 대한독립협회의 회보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¹⁵⁾의 필자 가운데 기독교 인사¹⁶⁾를 살펴보면 서재필, 안명선(안국선) 등의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 주재 선교사 찰스 빈튼과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맥고완, 존 프라이어, 티모시 리처드 등이다. 이들은 가톨릭 전통이 아니라 개신교 전통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과학·기술 지식에 대

14) 김영민, 「근대적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2, 2007, 297-338; 전은경, 「근대개봉기 서북지역 잡지의 편집 기획과 유학생 잡지의 상관관계-문학 개념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3, 2018.6, 231-270.

15)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1896년 11월 30일 제1호를 발행한 독립협회 기관지로 1897년 8월 15일 제18호로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제1권, 서울: 현암사, 2004, 28)

16) 발간 후 기독교 개종자 포함.

해 능통했던 존 프라이어의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조선 독립협회보』에서는 기독교 지식인 네트워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필진으로 선정되거나 선교사들의 글이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전성규가 연구한 것처럼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를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연결성을 부여하며 유학생 사회의 역사를 형성한 네트워크 너머의 힘이다.¹⁷⁾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는 1906년 11월 5일 간다구(神田區) 미도시로초(美土代町) 일본기독교청년회 건물에서 시작되었다. 1907년 8월 간다구 오가와마치(小川町) 2정목 7번지로 이전한다.¹⁸⁾ 태극학회·낙동친목회 등 여러 단체는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 건물을 각종 회의를 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였고,¹⁹⁾ 태극학회 산하의 태극학교, 동인학회 산하의 동인학교 등도 연합하여 세운 청년학원의 학교 건물로도 사용되었다.²⁰⁾ 그 후 1914년 9월 간다구 니시오가와마치 2정목 5번지 2층 양옥 회관을 건축한다.²¹⁾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

17) 전성규, 앞의 글, 129.

18) 김일환, 앞의 책, 229.

19) “잡록”, 『태극학회보』 제13호, 1907.9.24; 태극학회, 『완역태극학회보』3, 손성준·이남면·이태희·이진호 역, 보고서, 2020, 159-160.

20) 김일환, 앞의 책, 229.

21) 김일환, 앞의 책, 같은 면. 1907년 7월 24일 발행 『태극학회보』 제12호 “잡찬”에는 “대한기독교청년회에서 지금까지는 도쿄기독교청년회를 빌려 모이더니 이달 초순부터 간다구 니시오가와마치(西小川町) 2정목 5번지의 집 하나를 빌려 옮겨 모인다고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손성준·이남면·이태희·이진호 역, 앞의 책, 82.

“1906년 봄 질레트 총무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244명의 한국유학생들이 모여 와서 환영회를 열어 주었다. 질레트 총무는 이 사실을 즉시 ‘중국 한국 및 홍콩 YMCA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협조해 줄 것을 약속받고 돌아왔다. 때마침 서울의 YMCA 한인 총무 김정식이 총무자리를 그만두게 되어 즉시 도쿄에 파송되었다. 김정식이 도쿄에 도착한 것은 1906년 8월, 고오지마찌구에 있는 우리 한국공사관에서 준비를 하고 간다미도시로쵸에 있는 일본인 도쿄YMCA의 방 하나를 빌어 쓰다가 1906년에는 니시오까오쵸니쵸메(西小川町2丁目) 8번지에다 회관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송건호, 「제1편 민족수난기의 YMCA운동」, 대한 YMCA 연맹 위음, 『韓國YMCA運動史』(1895-1985),

는 ‘네트워크 너머의 힘’이라고 평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물은 김정식과 장웅진, 문일평, 최광옥 등이다. 특히 김정식은 1902년 6월 유성준, 이상재, 이승인, 이원궁, 홍재기 등과 함께 유길준 쿠데타 모의 사건 혐의자로 체포되 한성감옥서에 수감된다.²²⁾ 그는 감옥서에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 1904년 3월 출옥 후 곧바로 연동교회에 출석하면서 1904년 10월 23일 게일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²³⁾ 그는 연동교회 내의 기독교 교육 및 학교 교육에 참여하였고, 1904년 후반기 황성기독교청년회 한국인 수석 간사가 되면서 황성기독교청년회와 선교사 게일의 지원을 받은 국민교육회를 통한 교육운동에도 참여했다.²⁴⁾ 또한 1906년 8월에는 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 설립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1916년 귀국하기 전까지 총무로 활동하면서 당시 일본 유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²⁵⁾ 김정식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학생을 상대하였다. 그는 태극학회와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²⁶⁾ 그는 당시 유학생 80퍼센트 정도에게 먼저 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에서 처음 1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게 하였고, 일요일 오후에는 예배와 성경공부에 참석하도록 권면하였다. 일요일 예배와 성경공부에는 평균 유학생 81명 정도가 참석했다.²⁷⁾ 그는 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 주변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보았

路出版, 1986, 29-30.

22) 김일환, 앞의 책, 221.

23) 김일환, 앞의 책, 226.

24) 김일환, 앞의 책, 227.

25) 김일환, 앞의 책, 211.

26) 김정식, “去驕說(거교설)”, 『태극학보』 5(1906.12), 15-17; 신지연, 이남면, 이태희, 최진호역, 『완역 태극학보 1』, 보고서, 2020, 338-341. 이것은 김정식이 연설하고 김낙영이 필기한 것이다.

27)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흥성사, 2017, 158.

기 때문이다. 김정식은 1908년 정익로가 『국한문옥편』을 발행하기 위해 일본에 머무르자 10여 명의 유학생들과 의논하여 회관이 아닌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목사 파견을 요청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는 1909년 9월 3일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으로 파송하였고 한석진 목사는 1개월 동안 교회를 조직하여 영수에 김정식, 조만식, 오순형을 세우고 집사로 김현수, 장원용, 백남훈, 장혜순 등을 임명했다.²⁸⁾이 유학생 교회는 1912년 장로회와 감리회의 협정체결로 ‘연합예수교회(Union Christian Church)’가 되었다.²⁹⁾

일본 YMCA협동간사였던 선교사 클린턴은 1909년 1월 기록에서 “동경에는 학생 세 개 단체가 있고 각각 건전한 월간지들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진심으로 기독교청년회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³⁰⁾ 이만큼 대한기독교청년회 회관은 유학생 사회의 교류 중심지였고 기독교청년회는 이를 위한 여러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유학생 사회를 흡수하였

28) 김일환, 앞의 책, 233; 동경 유학생 교회 설립과 제일 조선인 선교에 대한 연구로는 이상훈,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한국교회 파견목사의 지위 변천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5, 85-116; 이상훈, 「초기 재일조선인 선교에 대한 재고찰: 미국 선교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269-299; 김민섭, 「1910년대 후반 기독교 담론 형성과 ‘기독교청년’의 탄생-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등이 있다.

“1907년에는 400명 또는 500명의 유학생 중 163명이 기독교신자가 되었으며 그 학생들의 질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이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그 회관에는 교실, 성경연구실, 독서실, 운동실 등을 차려놓고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다. …그(김정식 총무)의 독실한 신앙심, 그의 당당하고 여유있는 마음자세, 그의 기독교적인 생활태도는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기독교신자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교회를 창설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이 국내교회에 반영되어 결국 1909년 평양에서 열린 예수교장로회 제3회 장로회총회는 결의로써 한석진(韓錫晉) 목사를 도쿄에 파송하게 되었다.” 송건호, 앞의 글, 31.

29)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대일회회록』(1912), 12-13.

30) 일본 YMCA동맹, 『개척자』(The Pioneer), 1901.1. 유동식, 『소금 유동식 전집』6, 한들, 2009, 100쪽에서 재인용.

다.³¹⁾ 유학생 단체는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유학생들이 유학생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었고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단체의 협력관계는 점점 더 가속화되었다.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가 일본기독교청년회와 선교사나 지역 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지역 사회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³²⁾

조선 유학생단체와 기독교청년회의 관계는 1909년 1월 대한홍학회가 설립되면서 더욱 긴밀해진다. 유동식은 유학생 단체들이 오가와마치의 재동경기독교청년회관에서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유학생들이 대한홍학회를 결성하고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고 한다.³³⁾ 이것을 통해 보면 태극학회 및 대한학회, 공수학회 등을 비롯한 기존 유학생단체가 대한홍학회로 통합되는 데에 기독교청년회가 매개가 되었고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식이 인용한 황성 기독교청년회에 파견 나와 있던 질레트 선교사의 글 「동경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기독교 활동에 관한 몇 가지 사실」에서 당시의 대한홍학회 상황을 알 수 있다.

종교집회는 일요일 밤마다 열렸는데, 평균 81명의 유학생이 모였고, 일반 유학생 단체인 대한홍학회는 매주 토요일에 모였다. ... (당시) 509명의 유학생 가운데 213명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대한홍학회의 회장, 부회장, 『대한홍학보』의 주필 등이 모두 크리스천이었다.³⁴⁾

31) 전성규, 앞의 글, 130.

32) 전성규, 앞의 글, 130.

『태극학보』 제2호 ‘회원소식’ “본 회원 김영재(金英哉)씨는 중앙회당 목사 신학박사 히라이와 츠네호(平巖恒保)씨의 주선으로 치가사키(芽崎) 난고의원에 의술연구생이 되어 지난 15일 오전 8시 반에 신바시(新橋) 발 열차로 해당 자소로 향했다.”

33) 유동식, 앞의 책, 101.

34) P.L. Gillet, “Some Facts Regarding Christian Works among Korean Students in Tokyo”, 1909; 유동식, 앞의 책, 101에서 재인용.

대한흥학회와 대한기독교청년회의 관계에 대해 유동식의 견해가 더 견고해지려면 전성규의 지적처럼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 회원과 재일본 유학생단체 회원 사이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³⁵⁾ 재동경유학생학우회에서 발간한 『학지광』의 소식란³⁶⁾은 재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의 다양한 기독교 관련 행사를 전하고 있었고, 재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부회장에는 이광수, 간사에 백남훈, 종교부 위원 겸 서기로 전영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무성은 『학지광』을 조선기독교청년회의 기관지로 착각하기도 하였다.³⁷⁾ 조선 유학생 단체가 내외부 사정으로 회의 해산과 성립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청년회는 일관되게 단체를 유지하였다.³⁸⁾ 이는 근대계몽기 학술지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김정식에게 영향을 받고 활동한 장응진(張膺震, 1890~1950)³⁹⁾ 또한 근

35) 전성규, 앞의 글, 131.

36) 전성규, 앞의 글, 132.

37) 김영민,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잡지 연구』, 소명, 2019, 73.

38) 전성규, 앞의 글, 132.

39) 장응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덕상, 「백악춘사의 개화기문학적 위치」, 『국어교육』 46, 1983, 181-199; 한점돌, 「백악춘사 장응진론」, 『사회과학연구』 3,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33-50; 김윤계, 「백악춘사 장응진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2,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연구소, 1998, 17-202; 하태석, 「白岳春史 張膺震의 소설에 나타난 계몽사상의 성격·계몽기 지식인의 기독교 수용의 한양상」, 『우리문학연구』 14, 우리문학회, 2001, 321-340; 조현욱, 「안악지방에서의 애국계몽운동-안악면학회와 서북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29-76; 조남현, 「논설가, 이야기꾼, 투사를 거쳐 교육자(장응진론)」, 『한국현대작가의 시야』, 문학수첩, 2005, 116-152; 이유미, 「1900년대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글쓰기 방식의 상관성 연구-1900년대 잡지 소재 단편서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37-159; 김영민, 「근대적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 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화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297-338; 조상우, 「『경성백인백색』에 드러난 애국계몽기 시대상과 작가층」, 조경덕, 「구한말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1907년에 발표된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559-585; 구장률, 「근대지식의 수용과 문학의 위치-1900년대 후반 일본유학생들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대동문

대계몽기 학술지 기독교인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05년 일본으로 건너간 문일평(文一平, 1888~1936)은 장응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내가 동경에 건너가는 18세되던 해이었는데 때는 바로 일로풍운(日露風雲)이 반도를 거쳐서 만주의 산하를 뒤덮었던 1905년 봄이다. ... 나는 이렇게 말을 모르기 때문에 어학부터 먼저 준비하려는 결심하에 청강을 아주 그만두고 청산학원(靑山學院)을 떠나 말 배울 곳을 찾아서 本鄉區 日勝館이란 하숙으로 옮겨갔다. 이때 나는 日勝館에서 최광옥(崔光玉, 1879~1910)씨와 한방에 同留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 이웃방에는 장응진(張膺震)씨가 기숙하고 있었는데 崔氏는 正則學校에서 영어와 수리를 전공하였으며 張氏는 東京物理學校에서 역시 수리를 전공하였던 것이다.⁴⁰⁾

화연구원, 2009, 327-363; 최효석, 「장응진 소설의 성경 모티프 연구-일본 유학시절 작품을 대상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21-36; 윤경로, 「105인 사건 피의자들의 사건 이후 행적에 관한 소고-친일로 경도된 9인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91-152; 조형래, 「경찰과 감옥, 과학과 종교 사이-장응진의 소설과 논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89-314; 전은경, 「태극학보」의 표제 기획과 소설 개념의 정립 과정, 『국어국문학』 17, 국어국문학회, 171, 605-638; 조형래, 「학업면려와 방탕무뢰의 토포그래피-1900년대 학회지에 나타난 도쿄 유학생의 여가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6, 동악어문학회, 2016, 125-134; 이은선,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국사범(國事犯)의 형성과 정치적 무의식」, 『한국문학연구』 5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8, 215-242; 최진호, 「『태극학보』와 계몽의 문제-장응진의 『태극학보』 기고문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27, 국제한국문화학회, 2019, 59-82; 전은경, 「『태극학보』의 몽유록계 서사와 근대문학으로서의 가능성」, 『어문론총』 8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281-313; 안수강,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靑春』(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9, 한국실천신학회, 2022, 631-667; 권정희, 「'고백'없는 '고백' 담론-한일 근대 '고백'의 문화 연구」, 『사이間SAI』 3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3, 187-222.

40) 문일평, 「나의 半生」, 『호암전집』 제3권, (조광사, 1939; 영인본, 민속원, 1982), 489-490.

장응진은 1905년 가을학기에 최광옥⁴¹⁾과 함께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며 함께 활동하였다. 그는 최광옥 함께 동경고등사범학교를 다니면서 관서지방 유학생 중심의 태극학회 활동을 하였는데 최광옥은 신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1906년 7월 귀국⁴²⁾하였지만 장응진은 학회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1906년에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태극학보』의 편집 겸 발행인이었으며, 1907년에는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태극학회의 학술지인 『태극학보』에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학술적인 글 11편을 발표하고, 번역·정리한 글 3편, 수필 ‘해수욕장의 하루’ 등 2편, 소설 ‘다정다한(多情多恨)’ 등 4편, 총 20편을 연재하였다.⁴³⁾ 장응진의 소

41) 최광옥(崔光玉, 1879~1910)은 기독교인이며 1904년 숭실중학을 제1회로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갔다. 그리고 동경에서 태극학회의 총무원으로 활동하다가 신병으로 귀국후 교육구국사업과 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태극학보』 제1호 회원소식 “본회 총무원 최광옥씨는 창회 이래로 회무를 확장하기 위하여 매일 마음을 졸이더니 병환이 발생하여 지난 7월 16일에 본 회원 김상은, 박영로, 김홍량 씨 3인과 동반 귀국하였다.” 신지연, 이남면,이태희, 최진호역, 앞의 책, 95.

42) 최이권 편술, 『崔光玉약전과 유저문제 - 부 증언사편』, 동아출판사, 1977, 6-8.

43)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문음사, 1996, 43.

장응진이 『태극학회』 게재한 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는 기독교 관련 글이다.

유형	번호	저자	제목	표제	게재호(날짜)
논설	1	회원 장응진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상을 관찰하고 보통교육의 급선무를 논하다	강단	제1호(1906.08.24)
	2	편집인 장응진	공기설(空氣說)	학원	제1~2호(1906.09.24.)
	3	편집인 장응진	화산설(火山說)	학원	제2호(1906.09.24.)
	4	편집인 장응진	인생의 의무	강단	제2호(1906.09.24.)
	5	편집인 장응진	우리나라 국민교육의 진흥책	강단	제3호(1906.10.24.)
	6	편집인 장응진	진화학상 생존경쟁의 법칙	강단 학원	제4호(1906.11.24.)
	7	편집인 장응진	과학론(科學論)	강단 학원	제5호(1906.12.24.)
	8	편집인 장응진	사회아(社會我)	강단 학원	제7호(1907.02.24.)

설은 기독교적 배경을 하고 있으며, 객관적 시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당시 지식인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III. 근대 계몽기 학술지 속의 기독교 문화 수용

앞서 구한말 및 근대계몽기 학술지의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 출발과 형성 과정을 이 시기의 모든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대조선독립협회보(大朝鮮獨立協會報)』와 『태극학회보(太極學會報)』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대조선독립협회보(大朝鮮獨立協會報)』, 『태극학회보(太極學會報)』, 『서우(西友)』, 『조양보(朝陽報)』,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에 나

	9	장응진	심리학의 측면에서 관찰한 언어	강단 학원	제9호(1907.02.24.)
	10	白岳 장응진	양심론(良心論)	논단	제12호(1907.07.24.)
	11	장응진	교수와 교과에 대하여	강단 학원	제13호~15호(1907.09~11)
소설 · 수필	1	白岳生	해수욕장의 하루	학원	제2호(1906.09.24.)
	2	白岳春史	다정다한(多情多恨)	강단 학원	제6~7호(1907.01-02)
	3	白岳春史	춘몽(春夢)	강단 학원	제8호(1907.03.24.)
	4	白岳子 장응진	희망의 서광	논단	제11호(1907.06.24.)
	5	白岳春史	월하(月下)의 자유(自由)	문예	제13호(1907.09.24.)
	6	白岳春史	마굴(魔窟)	문예	제16회(1907.12.24.)
번역 · 정리	1	인도국 신사 보스 씨, 본국신사 윤치호 씨 번역, 白岳子 필기	인도의 기독교 세력	연설	제10호(1907.05.24.)
	2	미국 예일대학 학사 인도순행주부 에디쉬으쓰 씨, 김규식 번역	修身의 필요	연설	제10호(1907.05.24.)
	3	白岳子 필기	노동과 인생: 강도양천 선생의 절필- 『中央公論』에 실린 글	논단	제14~15호(1907.10~11)

타난 기독교 문화 수용을 소개하며 그 의의를 찾아보겠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6.11.30. 창간)에 나타나 는 기독교 문화와의 만남이다. 그 가운데 『대조선독립협회회보』의 특징은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소개이다. 그 가운데서도 많이 소개된 것은 중국 주재 선교사 존 프라이어의 『격치회편(格致彙編)』⁴⁴⁾이다. 존 프라이어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이자 과학 전파자이며 서양 서적의 번역자로서 문화전 달자이다. 그는 『격치회편』을 발간하고, 서양 과학지식을 중국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익지서회와 협력하여 『격치수지(格致須知)』⁴⁵⁾ 편 찬에 공들였다. 프라이어는 과학지식의 보급 현장에서 종교와 과학을 철저히 분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연현상을 해석할 때 신학의 목적론을 사용했다. 우리는 그의 다른 글인 『천문수지』에서도 그 흔적을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다.

일월성신이 적소에 안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재자의 경영이 없으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 우주는 지극히 큰 이상 이런 우주와 비교하면 지구는 오히려 하나의 먼지에도 미치지 못할 뿐이다. 사람을 미루어 보면 반드시 더욱더 작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때문에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매우 작은 존재로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다스리는가? 그러나 아직도 사람보다 작은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마치 흐린 물 한 방울에 무수한 미생물이 있는데 정밀한 현미경으로도 분별하기 어렵다. 또한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또한 각기 지체구복(肢體口腹)이 있어 음식을 먹으며 생활할 수 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존재하니 하물며 미생물인 인간보다 심히 큰 것

44) 『격치회편』은 1876년 2월에 창간된 중문 과학잡지인데, 창간될 때 영문명은 *The Chinese Scientific Magazin*이었는데 1877년 *The Chinese Scientific and Industrial Magazine*으로 변경된다. 이것은 마틴과 에드킨스 등 선교사들이 중국에 유용한 지식을 전파하는 학회를 조직해 편집한 『중서문견록(中西聞見錄)』의 연장선에 있다.

45) 『격치수지』 시리즈는 주로 초학자들의 입문서로 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회학교에서 사용되었다.

이겠는가?⁴⁶⁾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3호(1896.12.31.)에서는 『격치휘편』을 다루는 자세가 잘 드러난다. 그러면 근대계몽기 학술지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에서 차용한 『격치휘편』을 본격적으로 읽어보자. 제3호(1896.12.31.) “『격치휘편』을 읽고(讀格致彙編)”는 청의 석학인 서수徐壽가 쓴 ‘격치휘편序’에 한문으로 부가한 것이다. 여기서는 권정원의 번역의 도움⁴⁷⁾을 통해 읽어보자.

영국인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는 서기 1876년경 우리나라 개국 485년에 청나라 상하이에서 매월 한 권씩 책을 출간하니 이를 『격치휘편』이라 명명하였다. 이 서적은 격치사물의 이용후생에 대해 두루 자세히 써 놓았다. 군자들이 상해 등지에서 사소한 액수로 그 전질을 구매하여 한 번 대강 보기를 간절히 바라니, 이 책이 일용사물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히 그 요긴하고 유익한 곳을 간택하여 이 회보 중에 기재하지만 식견이 부족한 탓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하지는 못할 따름이다. 이 책의 서문은 청나라 석학인 서수가 지었는데, 그 서적의 요지를 다 아우를 만하다.⁴⁸⁾

치지격물의 학문이란 곧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齊治平)의 초급 공부이다. 이는 주자의 이른바 ‘내 지식을 미뤄 지극히 해서 아는 바가 다하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하여 이르

46) 胡思庸, “西方传教士与晚清的格致学”, 『近代史研究』(1985年06期), 149;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 Fryer)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56, 한국교회사학회, 2020, 186-187.에서 재인용.

47) 권정원·이강석·전미경·정문채·최진호 역, 『완역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보고사, 2023, 78-83.

48) 권정원·이강석·전미경·정문채·최진호 역, 앞의 책, 78.

지 앎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더라는 것이다.⁴⁹⁾ (중략) 존 프라이어 선생은 영국의 박식한 학자이다. 그는 중국에 와서 유학한 지 10여 년 만에 중국의 언어와 문자를 통달하더니, 특별히 서양 문자로 된 격치학 관련 서적 중에 중국인에게 유익한 내용을 간택하여 중국어로 번역하고 매월 1권씩 출간하였다. (중략) 이른바 격치학 중에 중국인에게 유익하여 실용에 시행토록 할 만한 것으로 말하자면, 천문(天文)·지리(地理)·산수(算數)·기하(幾何)·역예(力藝)·제기(製器)·화학(化學)·지학(地學)·금광(金礦)·무비(武備) 등이 그 주류이고, 그 나머지 예술도 복잡하여 필설로 다 서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 정수를 구하고자 하면 각기 참고할 전문 서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상해 제조국에서 서양 서적을 새로 번역하니 격치학 부문에 대해 두루 다 갖추었다고 일컬을 만하다.⁵⁰⁾ (중략) 그래서 존 선생이 늘 말하기를 ‘중국어 이 기서(奇書)를 읽는다면 격치학이 필시 성행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지역이 광대하고 인구가 조밀하여 인재가 번갈아 흥기하니,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가 그 서적을 다 읽을 것임에는 그다지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우려하는 바는 먼 변방 지역 일 경우 서적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략) 옛적 서광계가 일찍이 서유(西儒)를 칭찬하기를 ‘교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친근하며 또 흥미진진하게 후학을 잘 인도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존 선생의 생각을 보니 그 또한 옛 서유에 실로 버금간다. 이 서적의 명칭을 휘편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서구의 서적과 근사의 신문 중에 격치학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아의 노고를 사양하지 않고 요지를 간택하고 번역하여 휘집(彙集)으로 편성한 것이다.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 서적을 돌려보게 하여 이로부터 문경(門選)이 점차 넓혀져서 개충(開聰)이 더욱 지혜로

49) 권정원·이강석·전미경·정문채·최진호 역, 앞의 책, 78.

50) 권정원·이강석·전미경·정문채·최진호 역, 앞의 책, 79.

워지면 그러한 연후에 날이 쌓여 공적이 되고 작은 것이 쌓여 가득해질 것이니, 달로 헤아리면 부족하더라도 해로 헤아리면 넉넉해질 것이다. 그 요령을 얻어서 거듭 전질(全帙)에 전력하여 그 지극함에 나아가 활연히 소득이 있기를 바라나리, 민생의 일용의 일에 대해 조치함에 도리가 있고 실시함에 방도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이른바 실용에 보탬이 되는 효험이다. 이에 대략 서술함이 이와 같다. 설촌(雪村) 서수(徐壽)가 서문을 지었다.⁵¹⁾

제3호에는 프라이어와 맥고완⁵²⁾의 글이 있고 그 외 연재된 것을 살펴보면 제4호 “격치약론(格致略論)-안개·구름·이슬을 논하다”, 제6호 “격치론(전호 연속) - 설빙 및 동빙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 바람에 대한 이론”, 제8호 “인분 오류설(人分五類說)”, “기기사(氣機師) 와트”, 제9호 “와트와 증기기관에 대한 전기(전호 연속)” 등등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조선독립협회회보』에 수록된 『격치휘편』 기사

번호	수록권호 및 수록일자	필자	제 목	수록 면
1	제03호 1896.12.31.	프라이어	“독(讀)격치휘편(格致彙編)” 『격치휘편』을 읽다	1-4
2	제03호 1896.12.31.	맥고완	“有益之樹易地遷栽” 유익한 나무는 다른 지역에 옮겨 심자	4-6
3	제03호 1896.12.31.	?	“向日葵之用” 향일규의 사용처	6-7
4	제03호 1896.12.31.	?	“城市多種樹木之益” 도시에 수목을 많이 심는 이점	7-8
5	제04호 1897.01.15.	프라이어	“格致略論” 前號의 續이라 (論霧雲露) 격치약론(전호 연속)	2-5

51) 권정원·이강석·전미경·정문채·최진호 역, 앞의 책, 82-83.

52) 맥고완(瑪高溫, Daniel Jerome MacGowan, 1814-1893)

			- 안개·구름이슬을 논하다	
6	제04호 1897.01.15.	프라이어	“水論” 미완(未完) “물이야기”	5-6
7	제06호 1897.02.15.	프라이어	“格致論” 4號의 續이라 (氷雪及凍水理의 論) 빙설 및 동빙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	1-2
8	제06호 1897.02.15.	프라이어	“風論” 바람에 대한 이론	3-4
9	제07호 1897.02.28.	프라이어	“동방각국(東方各國)이 서양의 공예(西國工藝)를 모방(模倣)하는 것에 대한 총설(總說)이라” (前號格致論續이라)	1-6
10	제08호 1897.03.15.	프라이어	“人分五類說” 인분오류설	1-6
11	제08호 1897.03.15.	프라이어	“汽機師 瓦特傳” 기기사 와트	6-11
12	제09호 1897.03.31.	프라이어	“論電與雷” (未完) 번개와 천둥을 논하다	1-5
13	제09호 1897.03.31.	프라이어	“地球人數漸多應說法 以添食糧論” 지구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니 마땅히 법을 신설하여 식량을 늘리자는 의론	5-8
14	제09호 1897.03.31.	프라이어	“瓦特汽機傳” (前號의 續이라) 와트와 증기기관에 대한 전기	8-11
15	제10호 1897.04.15.	프라이어	“紡織機器說” 방직기계에 대한 설	1-4
16	제10호 1897.04.15.	프라이어	“礦學論” 광학론	4-8
17	제10호 1897.04.15.	프라이어	“金礦” 금광	8-9
18	제11호 1897.04.30.	프라이어	“電氣學功效說 - 附牛皮鍊熟法” 전기학의 효과에 대한 설·소가죽을 무두질하는 방법을 부기함	2-5
19	제11호 1897.04.30.	프라이어	“打作機器圖說” 쌀을 도정하는 기기의 그림과 설명	5-10
20	제11호	프라이어	“광학론(礦學論)” 금광(金礦) (前號의	10-15

	1897.04.30.		續이라)	
21	제11호 1897.04.30.	프라이어	“은광(銀礦)” (以下 次號)	15-16
22	제12호 1897.05.15.	프라이어	“대포와 철갑론(大砲與鐵甲論)”	1-3
23	제12호 1897.05.15.	프라이어	“영국 왕실론(英國王室論)”	3-6
24	제12호 1897.05.15.	프라이어	“은광론(銀礦論)”	6-11
25	제12호 1897.05.15.	프라이어	“동광론(銅礦論)”	11-13
26	제12호 1897.05.15.	프라이어	“생기설(生氣說)”	13-16
27	제12호 1897.05.15.	프라이어	“인진을 논하다(論燐論) - 화학편(化學編)”	16-20
28	제13호 1897.05.31.	프라이어	“동광론(銅礦論)” (前號의 續이라)	9-13
29	제14호 1897.06.15.	프라이어	“철광론(鐵礦論)”	8-13
30	제14호 1897.06.15.	프라이어	“西國富戶利民說” 서양 부호가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설	13-15
31	제15호 1897.06.30.	프라이어	“西法有益於民論” 서양의 법이 인민들에게 유익하다는 의론	1-2
32	제15호 1897.06.30.	프라이어	“철광론(鐵礦論)” (前號의 續이라)	8-10
33	제16호 1897.07.15.	프라이어	“創造鐵路宜先使民人感知利益說” 철로를 처음으로 만들 적에는 마땅히 먼저 민간인이 모두 그 이익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설	9-11
34	제17호 1897.07.31.	프라이어	“環遊地球雜記” 지구를 주유한 것에 관한 잡기	1-8
35	제17호 1897.07.31.	프라이어	“로마의 전설(羅馬傳說)”	8-9

36	제17호 1897.07.31.	프라이어	“지리 초광(地理初稿)” “제1장 지형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논하다(第一章 論地形及造法)”, “제2장 지각에 대하여 논함(論地殼)”, “제3장 지형에 대해 논함(論地形)”	9-14
37	제18호 1897.08.15.		“探地名人傳略” 새로운 땅을 탐사한 저명한 인물들에 관한 약전: 제임스 쿡 전기(高克傳), 마젠란 전기(麥折倫傳), 존 프랭크린 전기(富蘭克令傳), 몽고 파크 전기(蒙哥巴克傳), 데이비드 리빙스턴(立恒士敦傳)	3-8
38	제18호 1897.08.15.		“쇄설(瑣說)” “고금의 기이한 기억력에 관한 설(古今奇記說)”, “구름이 상승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현상에 관한 설(騰雲致雨說)”, “날아다니는 먼지가 태양의 빛을 나타낸다(飛塵現日光)”, “미국 및 일본에서 두려워할 만한 사물에 관한 문제(美國及日本에恐할만한 物의 問題)”, “술을 먹지 않고 끊는 효험이 있는 처방(禁酒妙方)”	8-12

『대조선독립협회회보』에서 인용된 프라이어의 『격치회편』을 분석하면 『격취회편』에 대한 전반적 설명, 서양 과학으로 설명하는 격치론, 영국왕실에 관한 이야기, 정치론, 서양법, 로마 이야기, 과학인물전, 기억력에 관한 이야기, 금주하는 방법 등이다.

『대조선독립협회회보』가 발간되던 시기에는 이미 기독교는 서양문명의 상징 또는 근대화에 대한 갈망의 통로로 여겨졌고 서양 선교사를 통한 기독교적 접근은 과학 문명 전파라 할 수 있다. 『대조선독립협회회보』에서는 서양 문화와 문물의 이식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태극학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독교 관련 기사들은 정빈의 글과 장응진의 소설, 그리고 김정식의 설교, 인도국 신사 보스씨의 연설, 쓰나시마 료센(綱島梁川)의 논설 등이다.

우리는 일반 학술지인 『태극학보』에서 그 당대 지식인사회의 기독교 수용과 변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 이식·수용에서 점차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주체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변용을 시도하고 있는 일면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정빈이 1906년 제4호 강단/학원에 기고한 “면면(面面) 그리스도”를 들여다보자.⁵³⁾ 정빈은 동양선교회 소속 성서학원을 졸업한 후 1907년 귀국 서울 종로에 복음전도관을 세우면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출발을 알렸다. 그의 설교 “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구속(救贖)의 주’와 ‘그리스도는 참자유’라는 것이다. 여기서 ‘구속’과 ‘참자유’라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그에 따른 기독교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당시 정빈의 활동은 또 ‘잡보(雜報)’에 나타나 있다. 다음 기사에서 정빈의 역할과 태극학회 구성원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본회 여러 회원이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하여 성서학원에서 성서 전공하시는 정빈씨께 매일요총회일에 30분씩 설교하기를 촉탁했다.”⁵⁴⁾

『태극학보』의 기사 가운데 당시 일본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김정식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를 모델로 삼아 장응진이 쓴 ‘사실소설 다정다한’을 주목할 수 있다.

김정식의 설교 “거교설(去驕說)”⁵⁵⁾은 ‘교오(驕傲)’에 대한 것인데 김낙영이 필기하여 『태극학보』 제5호 강단/학원에 게재되었다.

장응진은 백악춘사(白岳春史)라는 필명으로 당시 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 총무인 김정식을 모델로 삼아 ‘사실소설 다정다한(多情多恨)’⁵⁶⁾을 『태극학보』 제6호(1907.1.24.)와 제7호(1907.2.24.) 축사/사조에 발표한다.

53) 신지연, 이남면, 이태희, 최진호 역, 앞의 책, 292-295.

54) 신지연, 이남면, 이태희, 최진호 역, 앞의 책, 309.

55) 신지연, 이남면, 이태희, 최진호 역, 앞의 책, 338-341.

56) 신지연, 이남면, 이태희, 최진호 역, 앞의 책, 80-87; 151-156.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6호(1-4)에서는 김정식이 1898년 11월 독립협회의 시위와 관련하여 징계받고 1899년 2월 22일 경무청 경무관에서 면직되고, 1899년 3월 10일 개항장이 개설된 목포 무안항 경무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5월 18일에 의원 면직당하고 유길준 쿠데타 모의 사건에 연루되어 국사범으로 체포된 것까지의 내용이고, 제7호(5-7)에서는 김정식이 이원금, 이상재, 이승인, 홍재기, 유성준 등과 함께 경위원에 체포되어 있다가 평리원(平理院)으로 이송하여 감옥서에 수감⁵⁷⁾되고 한성감옥서에서의 생활 그 가운데 1903년 1월 개설된 감옥서적실에서 여러 가지 책 대출을 통해 기독교와 만남을 이야기한다. 김정식은 한성감옥서서적실에서 1903년 1월 『유몽천자』를 대출하기 시작으로 해서 1904년 3월까지 전체 60회 39권을 대출하였다. 그는 주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특히 한문 『신약전서(新約全書)』, 한글 『신약전서』 한글 『턴로력명』을 여러 번 읽었다. 달리 말해 김정식에게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신약전서』가 서양 문화와 기독교를 이해하는 매개가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장응진은 옥중 생활에서의 독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옥중 생활로 1년을 지낸 후에 이 뜻있는 무리는 옥관(獄官)의 후의로 5·6인이 한 방에 모이고 신체를 자유로 움직이게 되니 천조(千鈞: 1조는 30근)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로는 항상 5-6인이 모여앉아 고담(古談), 소화(笑話)와 신문 등으로 무료한 세월을 보내며 혹 재미있는 책자를 구하면 옥중의 소일거리가 될까 하였더니, 하루는 같은 시기 옥중에서 징역하는 모 지사의 인연으로 예수교책 수 백부를 들여왔단 말을 듣고 무료한 나머지 소설 보는 셈으로 혹 세상 근심을 잊을까 하여 친근한 부탁으로 『천로역정』 한 권을 구해오니, 이는 영국인 존 버니언이 눈먼 여식을 데리고 12년간 옥중에서 고생하며 저작한 것이었다. 선생은 같은 처지에 대해 동정의 눈

57) 김일환, 앞의 책, 220-221.

물을 금치 못하여 밤낮 쉬지 않고 꾸준히 읽으니⁵⁸⁾

김정식은 옥중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개종하게 되었다. 그의 신앙체험과 개종 이야기는 성서공회에 보낸 편지⁵⁹⁾와 1937년 5월 『성서조선(聖書朝鮮)』 100호 “신앙의 동기”에서 만날 수 있다. 그는 한성감옥서에서의 신앙 체험을 증언한 기록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총무로 일하던 1912년 10월 12일 작성하였고, 그것을 『성서조선』 100호에 “신앙의 동기”로 소개하고 있다.

『태극학보』에 나타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기사는 장웅진이 관여되어 있다. 1907년 5월 24일 발행한 『태극학보』 제10호 연설 인도국 신사 보스씨의 “인도의 기독교 세력”도 그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이 연설을 윤치호가 번역하고 필명 백악자(白岳子)인 장웅진이 필기하였다. 여기서 다

58) 신지연, 이남면, 이태희, 최진호역, 앞의 책, 152.

59)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팀 편, 『共嘯散吟 월남 이상재 선생 옥사기록(獄書記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2, 38-41.

장웅진의 “사실소설 다정다한(多情多恨)”의 내용을 입증해주는 것이 이상재, 이원국, 홍재기 등과 같이 성서공회에 보낸 편지인 ‘上同 三醒 金貞植: 성서공회에 보내는 편지 삼성 김정식’이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정동 성서공회를 통해 신학문의 서적 수백 종류를 구입하여 도와주었으니, 상제의 뜻을 준행하여 못 죄수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선한 길로 이끌어 들이려는 것이다. 나 역시 갖추어 읽으며 소일하다가 『천로역정』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는 200여 년 전 영구의 요한 번연이 12년 동안 옥중에서 저술한 것이다. … 요한 번연이 진리를 알고 믿으며 실천하고 지켰다는 것과 그가 상제의 참 종ियो, 예수의 신도임을 알 수 있다. 요한 번연이 고통을 달게 여기고 화를 즐거워 한다는 것의 본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자 하여 나는 『신약성서』를 두세 번 읽었는데, 비록 그 오묘한 뜻은 상세히 알지 못했지만 마음에 남몰래 느낀 바가 있었으니 이를 간략하게 말한다. … 총괄하건대, 스스로 반평생을 돌아보니 하늘을 배반하고 도에서 멀리 떠나 그 죄가 참으로 면하기 힘든데, 설령 이 몸이 옥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복음을 반드시 듣기는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를 팔기를 물건처럼 하는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하니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스스로 알지 못해도 사상은 전일과 조금 달라지니 『성경』에서 사람을 깨닫게 함이 이와 같다. 출옥하는 날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의 생각은 옛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 입증한다.”

루는 기독교는 가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동경 유학생들은 천주교와 다른 예수교를 기독교로 이해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장응진은 한국인 저술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쓰나시마 료센(綱島梁川, 1873~1907)⁶⁰⁾의 글 ‘노동과 인생’을 번역하여 『태극학보』 제14호(1907.10.24.)과 제15호(1907.11.24.)에 게재하였다.

1907년 10월 24일 발행된 『태극학보』 제14호와 1907년 11월 24일 발행 제15호 “논단”에는 쓰나시마 료센(綱島梁川)의 ‘노동과 인생’이라는 글을 백악춘사 장응진이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이 글은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노동하고 그 위에 노동하고 또다시 한번 노동하라”⁶¹⁾는 말로 시작해서 “신앙은 우리의 전 인격을 근거에서 총동케 하는 힘ियो 동작이다. 형식과 의문의 외적 동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에 관여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신앙만이 능히 하나님의 은총에 관여할 수 있게 함은 무엇 때문인가. 신앙은 영혼의 위대한 동작인 까닭이다”⁶²⁾라며 끝난다. 장응진뿐만 아니라 동경 유학생들의 기독교관을 형성하는 데 일본 사상가들의 영향도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극학보』에 나타난 기독교 문화수용 모습은 장응진의 관점에서 동경 유학생 가운데 기독교지도자, 개종한 지식인, 기독교계 인사, 재동경한국 기독교청년회 중심의 활동과 일본인, 외국인의 기독교에 대해 이해하고 전개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60) 쓰나시마 료센(1873~1907)은 기독교인이며 일본 명치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 작가, 윤리학자이다. 이 글은 백악춘사가 료센이 병석에서 초안을 잡고 집필하는 도중에 10년 동안 앉아서 나머지 전편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1907년 9월 14일에 세상을 떠나서 『중앙공론(中央公論)』에 실린 글을 두 차례 걸쳐 번역하고 『태극학보』 제14호와 제15호에 실은 것이다.

61) 손성준·이남면·이태희·이진호 역, 앞의 책, 167.

62) 손성준·이남면·이태희·이진호 역, 앞의 책, 247.

『조양보』에서는 기독교 관련 기사는 서양교육사와 관련 있다. 『조양보』는 장지연이 국민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국내외 정세를 보도하기 위해 창간하였고, 주요필진이 대한자강회 및 황성신문 계열의 인사들이어서 문명에 관한 특정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양보』는 번역에 대해 “과거를 해석하는 것, 근대를 번역해 들여오는 것, 해석하고 번역한 것들을 가공하여 사회에 전달하는 것, 여론으로부터 합의권 담론을 제시하는 것, 앞선 상황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가는 것”⁶³⁾으로 이해했다. 『조양보』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 관련 기사는 서양 교육사 가운데 1906년 9월 25일 발행된 『조양보』 제7호 “교육” 서양교육사 제3장 예수교와 교육의 관계, 제4장 중세 유럽의 교육과 1906년 11월 25일 제10호 “교육” 서양교육사 (속) 문학이 유럽 북부에 미친 영향, 1906년 12월 10일 제11호 “교육” 서양교육사 (속) 종교개혁과 관련됨, 등이 있다.

『소년한반도』에는 마티 노블의 『오모권면(兒母勸勉)』(*AN ADDRESS TO MOTHER ON THE CARE OF CHILDREN*)(1902)이 이응중(李膺鍾)의 이름으로 총 6회 연재되었다. 이응중은 기호흥학회 회원이기도 하였다. 『아모권면』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조선혜의 『매티 노블의 선교생활, 1892-1934』(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제3장 선교활동 4. 여성 계몽과 기독교 가정 세우기 1) 『아모권면』의 저술과 보급과 서신혜의 “마티 노블의 『오모권면(兒母勸勉)』과 그 영향력”과 “1910년대 이전의 아동 위상 제고提高활동”(『은지논총』 55, 2018)과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여성 아동 도서”(『기독교사상』 2021년 10월호) 그리고 손성준의 “해제 대 한제국기 잡지의 정치성과 애국운동의 접변: 『소년한반도』를 중심으로”

63) 전성규, “근대계몽기 학보 및 자료 연구의 현황과 『조양보』 번역의 시사점”, 『상허학보』 57(2019), 상허학회, 448.

(권정원·신재식·신지연·전민경·최진호 역, 『완역 소년한반도』, 보고사, 2021)가 있다.

손성준은 『소년한반도』 내에 소년 내지 청년을 향한 직접적인 발화의 예로 「아모권면」을 본다. 그러면서 영아 양육을 전담하는 부녀자를 위한 코너였으며 이 지면은 대부분 수유, 이유식, 수면, 감기 등 가정용 기초 의학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정리한다.⁶⁴⁾

『오모권면(兒母勸勉)』은 총 19면에 ‘모든 으히 어머니를 권면함, 음식 먹이는 법, 몸 간수하는 법, 병 다스리는 법’이라는 소제목을 두어 서술했다. 조선혜의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은 1906년에 간행된 것이 아니라 「신학월보」 1902년 8월호에 성서공회 출판 『오모권면』의 첫 광고가 실리고 1903년 8월부터는 「신학월보」 광고에 ‘오’가 ‘야’로 바뀌었다. 적어도 세 번의 판형 수정이 있었던 것 같다. 1901-1902년 사이의 초판본, 1903년의 맞춤법 수정본, 그리고 1906년 재간행본 등 세 종류가 있는 것 같다. 현존하는 것은 성서공회본이 아니라 조선예수회에서 1906년 초판본으로 낸 것부터 이후 다시 찍어 낸 것들만 국립중앙도서관,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대한기독교서회 전국 여러 도서관·박물관에 남아 있다. 이 책은 발간 당시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널리 보급되었던 것 같다. 『신학월보』 1903년 5월 기사에 가을 사경회에 참석하는 평신도 여성들을 향한 광고에는 그들이 미리 ‘공부할 것, 외울 것, 볼 것’이 제시되었다. 『오모권면』은 ‘볼 것’으로 제시되었다.⁶⁵⁾ 뿐만 아니라 1912년 6월에 발행된 *Korea Mission Field*의 “Mother’s Meetings”에는 정기적인 학부모 모임에서도 『아모권면』을 정규교재로 사용되고 있

64) 손성준, 「해제 대한제국기 잡지의 정치성과 애국운동의 집반: 『소년한반도』를 중심으로」, 권정원·신재식·신지연·전민경·최진호 역, 『완역 소년한반도』, 보고사, 2021, 22.

65) 조선혜, 『매티 노블의 선교생활, 1892-19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146-147.

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905년 출간된 의료선교사 샤락스(A. M. Sharrocks, 謝樂秀)의 『태위생』에서도 자궁론, 월경론, 잉태론, 해산론, 산후론 등으로 나누어 기술된 의학 관련 서적인데 책 마무리에 “아기 기르는 방법은 아모권면이라는 책을 사보시오”⁶⁶⁾라고 『아모권면』을 언급하고 있다.

『아모권면』은 당시 육아법의 대표적 저서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1906년 11월 창간되어 1907년 4월 통권 제6호로 중단된 「소년한반도」에 그 내용이 연재되었는데 완전하게 다 연재된 것이 아니라 제6호의 내용은 ‘병 다스리는 법’ 가운데 감기병과 복통병까지만 연재되어 있다. 『아모권면』과 「소년한반도」에 연재된 것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소년한반도』에 『아모권면』이 끝까지 다 연재되지 못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소년한반도』의 중간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당시의 기독교계 잡지에는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재되기도 하였다. 이런 시대상이 『소년한반도』와 『아모권면』 사이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아모권면』에서 매티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위생을 언급하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부터 논한다. “대개 하나님께서 조성하야 내신 바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람이라 사람을 자기 모양으로 내시고 복을 만히 베푸시는 지라 ...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 드러감을 위하야 배우는 학당이니라”⁶⁷⁾라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투영하고 있다.

매티 노블의 『아모권면』을 『소년한반도』에 연속 연재한 이유는 이 시기 산모와 태아, 영아에 관련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66) 샤락슈, 『태위생』, 감리교출판사, 1905, 22.

67) 매티 노블, 『아모권면』, 대한예수회서회, 1906, 1.

〈표 3〉 매티 윌콕스 노블의 『아모권면』과 『소년한반도』의 『아모권면』⁶⁸⁾ 비교

번호	내 용	『소년한반도』 수록권수, 수록일자, 수록쪽수	『아모권면』 쪽수
1	‘모든 으히 어머니를 권면함’	제1호, 1906.11.1. 78-80.	1-3쪽 3줄까지
2	‘모든 으히 어머니를 권면함과 ‘음식 먹이는 법’	제2호, 1906.12.1.140-141.	3쪽 3줄부터 5쪽 8줄까지
3	‘몸 간수하는 법’의 일부	제3호, 1907.01.	5쪽 9줄부터 8쪽 5줄까지
4	‘몸 간수하는 법’ 계속	제4호, 1907.02.	8쪽 6줄부터 10쪽 7줄까지
5	‘몸 간수하는 법’ 계속(내용 일부누락)	제5호, 1907.03.	10쪽 8줄부터 11쪽 14줄, 12쪽 4줄 아래부분부터 11줄 첫 글자까지
6	‘몸 간수하는 법’ 나머지부분, ‘병 다스리는 법’의 ‘감기병’과 ‘복통병’	제6호, 1907.04.	12쪽 11줄 둘째 글자부터 14쪽 생략된 부분 (‘설사병’, ‘음식에 체하는 증’, ‘열병’, ‘데인 것’, ‘목병’, ‘니 알는 병과 귀 알는 병’, ‘인력 주족후대’, ‘슈족이나 몸이 언대’까지)

VI. 나가는 말

이 연구는 ‘근대계몽기 학술지’ 속에서 ‘기독교’라는 화두를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근대계몽기 학술지와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와 기독교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근대계몽기 학술지와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전성규의 연구 “근대 지식인 단체 네트워크(2) - 『동인학보』, 『태극학보』, 『공수학보』,

68) 권정원·신재식·신지연·전민경·최진호 역, 『완역 소년한반도』, 보고서, 2021을 저본으로 쪽수를 기록하였다.

『낙동친목회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학계보』, 『학지광』 등 재일조선인유학생 단체 회보(1906-1919)를 중심으로”의 도움을 받아 시도할 수 있었다. 특히 『태극학보』와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의 관계에서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근대계몽기 학술지와 기독교 문화의 관계에서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에 연재된 중국 주재 선교사 존 프라이어의 『격치회편(格致彙編)』을 통해 19세기 서구의 가치관과 과학과 종교 관계 설정의 문제를 살펴 볼 수 있었고 『태극학보』에서는 정빈, 김정식, 장웅진, 일본인 학자 쓰나시마 료센(綱島梁川) 등의 글에서 기독교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양보』에서는 기독교 관련 기사는 서양교육사와 관련 있다. 『소년한반도』에서는 여성 선교사 매티 노블의 『아모권면』을 거의 다 그대로 연재한 모습에서 당시 인민들이 기독교에 바라는 바를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한말 및 근대 계몽 시기는 조선의 지배층이 대외 정책을 해금에서 개항으로 바꾸면서 서양에 대한 문화와 지식을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을 거치지 않은 서양인을 통해 직접 문화와 문명에 대한 검증과 정보가 유입되었고, 지식인들이 직접 해외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한반도는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근대전환기로 불리는 이 시기의 신·구 관료층, 유림층, 일반 민중층,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지식인과 일본 유학생들은 학회 및 협회를 구성하며, 실용 위주의 잡지보다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자주독립을 외치며 잡지를 창간하고 발행하였다.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은 1884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조선의 지배계층과 교류했으며, 기독교 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한국인 지식인 사회는 기독교로의 개종과 일본 유학을 통해 학술지 발간을 매개로 한 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근대계몽기

의 서양 문화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잡지들은 기독교 선교 관련 잡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기독교를 문화적 이해하고자 한 시도를 드러낸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 문화의 메타모포시스의 이식, 적극적 수용, 변용이라는 양상을 잘 설명한다.

근대계몽기 학술지를 모두 섭렵한 것은 아니지만 『대조선독립협회보』, 『태극학회보』, 『서우』, 『조양보』, 『소년한반도』를 보다 세밀하게 읽기를 통해 기독교 관련 기사에 대해 분석하면 근대전환기와 기독교라는 화두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재동경대한기독교청년회(YMCA)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그들의 문헌 속의 기독교 사회윤리 사상을 다음 과제로 남기기로 하자.

참고문헌

•원전

샤락슈, 『태모위생』, 감리교출판사, 1905.

매티 노블, 『아모권면』, 대한예수회서회, 1906.

•번역서

권정원 · 이강석 · 전미경 · 정문채 · 최진호 역, 『완역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보고서, 2023.

권정원 · 신재식 · 신지연 · 전민경 · 최진호 역, 『완역 소년한반도』, 보고서, 2021.

손성준 · 신지연 · 이남면 · 이태희 역, 『완역 조양보』 1, 보고서, 2019.

손성준 · 신지연 · 이남면 · 이태희 역, 『완역 조양보』 2, 보고서, 2019.

태극학회, 『완역 태극학보』 1, 신지연 · 이남면 · 이태희 · 최진호 역, 보고서, 2020.

태극학회, 『완역 태극학보』 2, 신지연 · 이남면 · 이태희 · 최진호 역, 보고서, 2020.

태극학회, 『완역 태극학보』 3, 손성준 · 이남면 · 이태희 · 이진호 역, 보고서, 2020.

•논저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문음사, 1996.

김민섭, 「1910년대 후반 기독교 담론 형성과 ‘기독교청년’의 탄생-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김영민, 「근대적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2, 2007.

김영민,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잡지 연구』, 소명, 2019.

김윤재, 「백약춘사 장웅진 연구」, 『민족문화사연구』12, 민족문화사학회, 1998.

김일환, 『1899-1904년 한성감옥서 수감자들의 기독교 입교에 관한 연구』, 북랩, 2023.

대한 YMCA 연맹 엮음, 『韓國YMCA運動史』(1895-1985), 路出版, 1986.

문일평, 『호암전집』 제3권, (조광사, 1939; 영인본, 민속원, 1982)

설충수, 「존 프라이어(John Fryer)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56, 한국교회사학회,

- 2020.
-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팀 편, 『共嘯散吟 월남 이상재 선생 옥사기록 (獄畵記錄)』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2.
- 유동식, 『소금 유동식 전집』6, 한들, 2009.
- 이상훈,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한국교회 파견목사의 지위 변천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5.
- 이상훈, 「초기 재일조선인 선교에 대한 재고찰: 미국 선교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 전성규, 「근대 지식인 단체 네트워크(2) - 『동인학보』, 『태극학보』, 『공수학보』, 『나동친목회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학계보』, 『학지광』 등 재일조선인유학생 단체 회보(1906-1919)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3-2, 2022.
- 전성규·허예슬·이여진·최장락, “근대 계몽기 지식인 단체 네트워크 분석”,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
- 전은경, 「근대계몽기 서북지역 잡지의 편집 기획과 유학생 잡지의 상관관계·문학개념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3, 2018.
-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흥성사, 2017.
- 조경덕, 「구한말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 1907년에 발표된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 조선혜, 『매티 노블의 선교생활, 1892-19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 최연정, 「종교체험의 사회화: 구한말 한성감옥의 옥중 개종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44-4, 2023.
- 최이권 편술, 『崔光玉약전과 유저문제 - 부 증언사편』, 동아출판사, 1977.
- 최호석, 「장응진 소설의 성경 모티프 연구: 일본 유학 시절 작품을 대상으로」, 『동북아문화연구』2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 하태석, 「백약춘사 張膺震의 소설에 나타난 계몽사상적 성격: 계몽기 지식인의 기독교 수용의 한 양상」, 『우리문학연구』 14, 우리문학회, 2001.
- 한점돌, 「백약춘사 장응진론」, 『사회과학연구』 3,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 홍승표, 「기독교와 출판, 그 만남과 동행의 여정」 서린동 한성감옥에서의 옥중도서실과 집단개종, 『새가정』 69, 새가정사, 2017.

논문투고일: 2024년 03월 14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18일

• 국 문 초 록 •

“근대 전환기와 기독교”라는 화두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와 같다. 왜냐하면 몇 년 전 “국정교과서” 논란의 한 축이 되는 화두였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 전환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 글은 ‘근대계몽기 학술지’ 속에서 등장하는 ‘기독교’라는 화두를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여기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근대전환기의 잡지인 『대조선독립협회보』, 『태극학회보』, 『서우』, 『조양보』, 『소년한반도』등이고 구체적으로 기독교 관련 인물들의 투고내용과 기독교 관련 기사이다. 또 다른 연구대상은 1899-1904년 한성감옥서(漢城監獄署) 수감자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들과 일본 유학생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대계몽기 학술지 속의 기독교 문화 수용과 재동경대한국독교청년회와 기독교 인적 네트워크 형성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근대계몽기, 학술지, 기독교, 기독교문화, 일본유학생
